

고령화와 젠더 불평등: 노인 부부의 무급 노동을 중심으로*

안미영**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60세 이상 노인부부의 가사 및 돌봄 노동 시간량과 부담률의 젠더 간, 젠더 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량은 남편의 시간에 4배 이상이며 돌봄 노동은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전체 가사노동 시간에 대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5분의 1이 되지 않으며 돌봄 노동은 3분의 1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는 은퇴를 통한 남편의 가용시간 변화나 성역할 인식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개인과 가구 차원의 변인을 통제하고 가용시간론, 상대적자원론, 절대적자원론, 사회화된 성역할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남편과 아내에서 다른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남편의 소득은 아내의 무급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아내의 소득은 남편의 가사노동 부담률과 돌봄 노동 시간량을 증가시켰다. 아내의 가사노동 부담률은 상대적 소득에 의해 줄지 않는 젠더 전시적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소득의 영향은 무급노동의 젠더 간 차이보다 젠더 내, 특히 노인 여성 집단내의 차이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량보다 부담률의 차이를 더 설명하며 돌봄 노동보다 가사노동의 차이를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 연구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노인, 가사노동, 돌봄 노동, 젠더 불평등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926961)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부교수(myang@kookmin.ac.kr)

I. 서론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한다(통계청, 2015). 한국은 곧 노인비율이 15% 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된다.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9년 뒤인 2026년 노인 인구 비율은 20%로 상승한다. 유엔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일본 27.3%, 스위스 23.4%, 덴마크 23.3%, 독일 23.2%, 스웨덴 22.4%로 예측되고 있어 한국은 앞으로 10년 이내 이들 국가들과 함께 초고령 사회로 전환될 것이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한국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고령화 혹은 노인의 사회 및 정책 문제에 대한 학술 연구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여가 및 소비(조미라, 2016; 이소정, 2009)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는데 소득과 건강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우해봉·윤인진, 2005; 최희경, 2005; An, 2009; 이용재, 2008; 김경아, 2008; 손병돈, 2009; 강병창, 2010; 지은정, 2011; 천희란·강민아, 2011; 김진구, 2012; 김동배 외, 2012; 이원진, 2012; 이용재, 2016; 장수지·김수영, 2016).

아직까지 학문적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고령화와 불평등의 중요한 이슈는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이다. 국외에서는 관련 연구가 1970년대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진행되다가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관련 분야 연구는 몇 개에 지나지 않는데 가사노동이 노년기의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김영혜, 2004), 여성 노인의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젠더 불평등에 관해 노인 자신의 생애 구술을 통한 질적 분석(이현주, 2015), 한국과 캐나다 노인의 가사노동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분석(정순희, 2005) 정도를 포함한다. 국내 연구자에 의한 무급노동의 젠더 격차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활동인구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중장년층의 사례를 다룬 국내 연구가 있지만(김정석, 2005; 안미영, 2015)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미시차원의 대표적인 이론은 가용시간론, 상대적 자원론, 사회화된 성역할론이 있다. 이 이론들에 비춰보면 노인부부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은 흥미로운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노년기에 접어

들면서 대다수가 경험하는 은퇴는 개인의 가용시간과 소득 자원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세대는 비노인 세대에 비해 남녀 모두 대체적으로 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55.5%가 배우자가 있다. 노인 세대의 과반 이상이 파트너십 관계라는 것,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은 고령화와 불평등의 주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노인의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젠더격차의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한국 노인의 무급 노동의 젠더 간, 젠더 내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생애과정접근법(Lifecourse approach)을 사용해 왔는데 특히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 변화에 따른 무급 노동 분배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생애과정접근법의 한계에 대한 논의 및 국내 학자들의 경제활동인구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 연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노인부부의 무급 노동 젠더 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 노동 젠더 불평등에 대한 첫 연구로서 한국의 고령화와 젠더 불평등 논의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II. 노인 부부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

노인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에 관한 최근 국외 연구는 생애과정접근법(Lifecourse approach) 주로 활용해왔는데 은퇴가 가사노동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관련 연구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지속가설은 은퇴 이후 가사노동 분배는 은퇴 이전의 불평등 상태의 지속이라고 주장한다(Burbaker and Kinsel, 1985; Szinovacz, 1980; Keith and Schafer, 1986). 이러한 주장은 사회화된 성역할론에 그 근거를 둔다. 몇몇 연구가 이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Hank and

Judges(2007)는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2004년 자료를 사용하여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의 50세 이상 커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과 가용시간의 영향도 발견하였으나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불평등한 분배가 강하게 발현됨을 발견하였다. Solomon et al (2004)은 은퇴는 가용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은퇴 전에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남성은 은퇴 이후 가사노동을 증가시킬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보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남성은 은퇴 이후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수렴가설은 은퇴 이후 가사노동의 젠더 격차는 감소한다고 주장하는데(Gauthier and Smeeding, 2003; Leopold and Skopek, 2015) 그 원인으로 은퇴에 따른 가용시간의 변화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87-1988년에 수집된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자료를 가지고 Szinovacz and Harpster(1994)는 55-72세 남편과 50-72세 아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설에 반하는 경험적 근거를 발견한다. 일하는 아내와 사는 은퇴한 남편은 남성적 가사노동(집수리하기/ 정원관리)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업주부와 사는 일하는 남편에 비해 전업주부와 사는 은퇴한 남편은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한 남편과 사는 전업주부인 아내는 일하는 남편과 사는 전업주부인 아내에 비해 여성적 가사노동에 적은 시간을 할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uthier and Smeeding(2003)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의 1987에서 1992년에 수집된 생활시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은퇴에 따른 가용시간의 증가는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와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감소를 가져와 젠더 격차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Lepold and Skopek(2015)는 독일의 남성부양자 가족을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남편의 은퇴에 따라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증가하는데 특히 집수리하거나 정원관리등을 포함한 남성적 가사노동의 증가를 발견하였다.

기존 연구는 은퇴라는 생애사가 무급노동 젠더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리하면 생애사관점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은퇴 전과 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가용시간의 변화와 성역할 인식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은퇴를 통한 가용시간 변화에 따른 젠더 격차 감소 혹은 성역할 인식에 따른 젠더 격차 지속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첫째 노인세대는 경제활동 인구 계층과 다른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집단이다. 은퇴에 대한 경험도 다양하며 남녀의 성역할 인식 차이 역시 젊은 세대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 세대의 무급노동 불평등에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 자원의 영향은 중요한데 대부분의 연구가 가용시간이라는 자원의 변화에만 집중하고 소득 자원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Szinovacz and Harpster(1994)는 남편의 소득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반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아내의 소득은 남편과 아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k and Judges(2007)는 소득이 아내와 비슷한 남편에 비해 소득이 높은 남편은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 분배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소득 자원의 영향은 특히 한국 사례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65세 이상 남성의 고용율은 41.1% 여성은 22.9%로 높은 노동시장 참여는 한국노인의 경제적 특성 중 하나이다. OECD 국가 평균인 남성 18.9% 여성 9.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OECD, 2017)

따라서 노인 세대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은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가용시간, 상대적/절대적 자원, 사회화된 성역할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에 가용시간, 소득, 성역할 인식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도출을 위해 가사노동 젠더 차이에 관한 미시차원의 이론 즉 가용시간론, 상대적 자원론, 절대적 자원론, 사회화된 성역할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학자들에 의한 경제활동인구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용시간론은 유급노동시간에 반비례하며 남녀 모두 유급 노동 시간이 적으면 남은 시간을 무급 노동에 할애한다는 주장이다 (Blood and Wolfe,

1960). 상대적 자원론은 경제적 협상에 따른 교환론에 그 근간을 둔다. 교육 수준이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획득한 자원의 수준이 높은 자는 경제적 협상력을 발휘하여 누구나 피하려고 하는 노동(예를 들어 가사노동)을 줄인다는 가설이다(Becker, 1981). 상대적 자원론은 가용시간론과 동일하게 젠더 중립적인 이론이다. Gupta(2007)는 상대적 자원론은 통계적 우연의 산실이라고 혹평하며 절대적 수준의 자원을 강조한다. 즉 상대적 소득이 아닌 여성의 절대적 소득이 가족 내 가사노동에 대한 협상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사회화된 성역할론은 성별 분업은 사회화된 성역할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다(Coverman, 1985; West and Zimmerman, 1987). 학자들은 사회화된 성역할 측정을 위해 성역할인식에 주목하였고 성역할 인식은 자원의 경제적 협상력을 와해시켜 젠더 전시적(Gender display) 행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Brines, 1994; Greenstein, 2000). 경제적 자원이 배우자보다 높은 여성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아내보다 소득이 낮은 남편이 아내보다 소득이 높은 남성에게 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지 않는 행태도 해당한다. 이러한 행태를 젠더 전시(Gender display), 젠더 수행(Doing gender) 혹은 일탈적인 성역할 중화론(Deviant gender neutralization) 등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젠더 전시 용어를 사용한다. 흥미롭게도 Iversen and Rosenbluth(2006)는 성별 역시 사회화된 성역할에 부합하기 위한 행태의 원인기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설문지 응답자들은 그들의 성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성별 역시 사회화된 성역할에 부합하는 행태의 주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한국 학자들의 비노인세대 즉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가사노동분배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의 가설을 도출하는데 유용하다.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1999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활용한 손문금(2005)은 20-59세 가구주 배우자로 구성된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유급노동시간의 부적 영향관계를 발견하였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종사상지위, 직업, 그리고 연령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발견하였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한 김수정과 김은지(2007)는 여성의 높은 수준의 가사노동은 상대적 자원에 의한 젠더보상이라고 주장한

다. 성역할 인식, 가용시간 그리고 상대적 소득을 모두 포함한 은기수(2009)의 연구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55세 유배우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역할 인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부간의 상대적 시간 제약과 상대적 소득의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배호중(2015)은 2009년 생활시간 조사를 활용하여 부부의 상대적 소득 관계를 유형화 하여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구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홀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비해 긴 것을 발견하였다. 김소영과 진미정(2016)은 2004, 2009, 2014년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10년간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했음을 발견하고 그 원인으로 아내의 소득비중, 고학력화,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가용시간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오지혜(2016)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절대적 소득과 상대적 소득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절대 및 상대소득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둘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절대소득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존 연구는 주요 변인에 대한 개념화와 조작화가 다양하고 연구샘플 선정 방식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으로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포함하기도 하고(조미라·윤수경, 2014) 쇼핑시간을 가사노동에 포함 해야 하는지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거나(허수연, 2008), 가사노동은 쇼핑을 포함한 가정관리 행위로 돌봄 노동은 가족 돌보기로 정하는 등(안미영, 2016) 다양하다. 성역할 인식, 상대적 자원, 가용시간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안미영(2016)과 은기수(2014)의 연구를 포함하여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통제 변인으로 포함된 변수 역시 상당히 다양하며 건강상태가 무급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Szinovacz and Harpster, 1994) 이를 포함한 연구는 몇몇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안미영, 2016, 2017). 따라서 한국 부부의 무급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일반론을 도출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은 가용시간의 영향, 상대적 자원 특히 소득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은 남편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 반면 아내의 소득이 본인의 무급노동을 줄이거나 남편의 무급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미비하다. 또한 남성의 무급노동은 본인의 성역할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여성의 경우 영향 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비노인세대에 대한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예측하는 바를 노인부부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가? 무급노동에 관한 연구는 가족시스템이론(Broderick, and Smith, 1979)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커플간 자원의 상호의존을 가정한다. 자원의 젠더 차이가 클수록 해당 자원이 무급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Bianchi et al, 2000; Bittman et al, 2003). 그렇다면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에 가용시간의 영향은 주요할 수 있다. 비벌이 부부의 비율이 비노인세대 보다 높지만 노동시장 참여율의 젠더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소득자원 차원을 생각해보면 영향이 복잡적일 수 있는데 이유는 노인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는 심각한 반면 남성의 부양자 역할은 젊은 세대 남성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성의 부양자 역할 감소는 아내가 무급노동에 경제적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노인 부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국외 연구와 같이 남편의 소득이 본인 가사노동에는 영향을 미치나 아내의 가사노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Szinovacz and Harpster, 1994). 노인세대 남성과 아내의 성역할 인식의 차이는 비노인세대에 비해 낮다.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에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포함한 응답율이 59세 이하 인구 중 30.1%인 반면 60세 이상인구는 53.8%로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주하 외, 2015). 따라서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은 성역할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 수준이 미비할 것이다. 반면 성별은 사회화된 성역할론에 대한 인자로서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분석적 이슈는 무엇의 젠더 불평등(Gender inequalities of what?)인가에 관한 것이다. 안미영(2016)은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와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 연구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시간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시간량 혹은 분담률(아내 혹은 남편의 무급노동 시간이 부부의 전체 무급노동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혹은 분배 형태 (평등 혹은 불평등)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분명히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젠더 불평등에 대한 이해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Greenstein(2000)의 연구는 시간량과 분담률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에게서 젠더 전시적 행태를 발견하는데 이는 분담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는 시간량과 분담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기로 한다.

아직까지 개념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즉 무급노동의 종류에 따른 젠더 불평등의 상이함이다. 앞서 언급한 가용시간론, 사회화된 성역할론, 상대적 자원론 모두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도출 및 검증된 이론들이다. 국내 학자들에 의한 연구도 대부분 가사노동을 다루고 있다. 돌봄 노동도 가사노동과 비슷하게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 혹은 사회화된 성역할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 안미영(2016)은 고용형태와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을 분석하면서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에 미치는 인자는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을 분리해서 분석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남녀 간 즉 젠더 간 차이에 관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젠더 내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며(안미영, 2016) 특히 경제적 교차력과 젠더 전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Brines (1994)와 Greenstein (2000)과 같이 남성 집단, 여성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은 여성의 몫일 것이다.

둘째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 노동 젠더 간 차이는 가용시간, 소득, 성역할 인식에 비해 성별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 노동 젠더 내 차이에 가용시간이 미치는 영향은 주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 젠더 내 차이에 사회화된 성역할로서 성별의 영향은 주요한 반면 성역할 인식의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 젠더 내 차이에 소득이 미치는 영향은
주요하게 나타날 것이며 경제적 교환과 젠더 전시로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샘플, 변수, 측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2014년도 자료의 응답자와 배우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며 동거하는 부부를 연구샘플로 선정하여 설명변인이거나 통제변인이 걸쭉인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2,659 부부가 선정되었다. 종속 변인인 가사노동은 생활시간조사의 가정관리 항목에 포함된 세부 행위를 모두 포함하였고 가정관리와 관련한 이동시간도 포함하였다. 돌봄 노동은 가족 및 가구원 돌봄의 세부 행위와 돌봄행위와 관련한 이동시간도 포함하였다. 가정관리는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 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동물 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를 포함한다.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는 아이,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동거 가구원에 대한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놀이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를 포함한다. 무급노동은 시간량과 분담률로 측정하였는데 분담률은 부부 시간 총량 중 본인의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원인변인은 가용시간, 절대소득, 상대소득 그리고 성역할 인식, 성별이며 다음과 같이 조작화 하였다. 가용시간은 유급노동시간으로 측정하였으며 주업과 부업을 포함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소득을 구간으로 수집한다. 중간값을 구간값으로 변환하여 절대적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상대적 소득은 Sørensen and McLanahan(1987)의 경제적의존성(Economic dependency) $((\text{본인의 소득} - \text{배우자의 소득}) / (\text{본인의 소득} + \text{배우자의 소득}))$ 을 활용하였다. 경제적 의존성은 +1에서 -1 값 사이를 취하는데 +1은 완전한 경제적 독립성

즉 본인이 경제적 의존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1은 그 반대이며 0은 본인과 배우자 소득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부는 경제적 의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경제적 독립성 용어를 사용한다. 즉 값이 클수록 경제적으로 덜 의존적임을 의미한다. 성역할 인식은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한 동의 정도에 관한 결과를 활용하여 적극찬성과 약간찬성을 포함하여 전통(0) 혹은 약간반대와 적극반대를 포함하여 진보(1)로 구분하였다. 남성(0) 여성(1)로 구분하였다.

통제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요일 그리고 총가구소득을 포함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0), 2-3년제 대학 이상(1)으로 구분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데 본 연구는 보통이상의 건강상태(0) 건강 안 좋음(1)으로 구분하였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수집한 자료는 평일(0)과 주말(1)로 구분하였다. 본인과 배우자의 인구경제학적 정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생활시간 조사는 동거 가구원 중 10세 미만 가구원과 돌봄이 필요한 성인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을 의존 가구원이라는 새로운 변인으로 생성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2. 분석에 사용한 변인에 관한 기술 통계 정보

〈표 1〉은 주요변인에 관한 기술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남편의 평균 연령은 71.3세 여성은 67.9세였다. 남편의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355.5분 아내는 321.1분 이었다.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143.9만원 아내의 소득은 51.7만원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상대적으로 더 독립적이며 아내는 의존적인데, 남편의 독립성은 0.44 아내는 -0.44 였다. 남편의 58.9%와 아내의 43.5%가 전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의 80.6%와 아내의 91.1%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46%와 아내의 33.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부의 평균 가구소득은 230.6만원이었다.

남편의 81.3%와 아내의 74.5%로 보통이상의 건강상태라고 응답하였다. 10세 미만아동과 돌봄이 필요한 성인 가구원의 비율은 11.7%로 나타났다.

〈표 1〉 분석에 사용한 변수에 관한 샘플의 기술 통계 정보(평균/표준편차)
(비율) (가중치 적용)

		남 성	여 성
연령		71.3/ 6.46	67.9/ 5.94
유급노동시간(분)		355.5/ 165.1	321.1/ 153.2
월평균 소득(만원)		143.9/ 113.5	51.7/ 68.2
경제적 독립성		0.44/ 0.53	-0.44/ 0.53
성역할인식	전통	58.9	43.5
	진보	41.1	56.5
경제활동	참여	46	33.4
	미참여	54	66.6
교육수준	저학력	80.6	91.1
	고학력	19.4	8.9
건강상태	보통이상	81.3	74.5
	안 좋음	18.7	25.5
요일	평일	66.8	74.1
	주말	33.2	25.9
의존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		11.7	
연 평균 가구소득(만원)		230.6/ 154.7	

IV. 분석 결과

1. 노인 부부의 가사 및 돌봄 노동

〈표 2〉는 가사 및 돌봄 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남편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57.8분이고 여성은 238.5분으로 60세 이상 기혼 노인 여성은 60세 이상 노인 남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시간을 가사 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하루 평균 돌봄 노동시간은 43.1분, 아내는 77.9분으로 아내는 두 배 가까운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고 있었다. 남편의 평균 가사노동 분담률은 18.5%, 아내의 분담률은 81.4%로 나타

났다. 남편의 돌봄 분담률은 34.1% 인 반면 아내의 분담률은 65.9%로 나타났다.

〈표 2〉 노인 부부의 무급 노동 (평균/표준편차)(비율)(가중치 적용)

	남 편	아 내
가사노동 시간량	57.8/ 77.7	238.5/ 122.8
돌봄노동 시간량	43.1/ 83.6	77.9/ 112.4
가사노동 분담률	18.5/ 22.4	81.4/ 22.6
돌봄노동 분담률	34.1/ 42.5	65.9/ 42.0

주: 본인과 배우자의 총 가사와 돌봄 노동시간이 0보다 큰 부부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2. 60세 이상 기혼 부부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3〉은 노인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성별에 의해 주요하게 영향을 받아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166.4배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었다. 소득이나 성역할 인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본인의 유급노동시간은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사노동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수준에 의해 주요하게 달라졌는데 본인의 건강이 좋거나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가구원은 가사노동시간량을 줄이고 있었다. 남편과 아내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편의 가사노동 차이는 그들의 유급노동시간, 아내의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유급노동시간이 적을수록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시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본인의 유급노동시간, 본인 소득,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본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본인의 가사노동 시간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집단 내 가사노동 차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가구는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량 차이에는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60세 이상 기혼 노인의 가사노동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남편		아내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본인 유급노동시간	-0.14*** (0.01)	0.26 (3.87)	-0.06*** (0.01)	0.27 (3.73)	-0.27*** (0.03)	0.25 (4.06)
본인 소득	-0.05 (0.03)	0.31 (3.20)	-0.03 (0.03)	0.32 (3.17)	-0.19*** (0.06)	0.38 (2.64)
본인 성역할 인식	0.95 (2.91)	0.88 (1.13)	4.29 (3.17)	0.90 (1.12)	0.78 (4.85)	0.89 (1.12)
경제적 독립성	-4.40 (4.30)	0.23 (4.43)	7.94 (5.23)	0.30 (3.33)	4.05 (8.02)	0.30 (3.33)
배우자 유급노동시간	0.02 (0.01)	0.26 (3.87)	-0.01 (0.02)	0.25 (4.05)	0.04* (0.02)	0.27 (3.73)
배우자 소득	-0.01 (0.02)	0.34 (2.98)	0.08* (0.04)	0.39 (2.60)	-0.01 (0.04)	0.37 (2.74)
배우자 성역할인식	-5.10+ (2.91)	0.88 (1.13)	-3.55 (3.16)	0.90 (1.12)	-4.47 (4.85)	0.90 (1.12)
본인 나이	-0.35 (0.36)	0.36 (2.80)	-0.15 (0.39)	0.37 (2.74)	-0.21 (0.60)	0.39 (2.58)
본인 교육	-4.36 (4.98)	0.72 (1.39)	-6.73 (4.68)	0.70 (1.43)	-3.04 (10.72)	0.73 (1.37)
본인 경활여부	-1.45 (5.35)	0.27 (3.70)	8.45 (5.55)	0.29 (3.50)	-24.53* (9.51)	0.25 (4.02)
본인 건강	-18.44*** (3.48)	0.88 (1.13)	-17.68*** (4.02)	0.87 (1.15)	-16.73*** (5.46)	0.90 (1.12)
배우자 연령	-0.25 (0.36)	0.37 (2.74)	0.08 (0.39)	0.40 (2.52)	-0.57 (0.59)	0.37 (2.69)
배우자 교육	-10.98* (4.98)	0.72 (1.39)	0.29 (6.99)	0.73 (1.37)	-19.12* (7.16)	0.70 (1.43)
배우자 경활여부	-5.46 (5.35)	0.27 (3.69)	-12.35 (6.19)	0.25 (4.00)	1.16 (8.49)	0.29 (3.49)
배우자 건강	13.77*** (3.50)	0.90 (1.11)	13.83*** (3.61)	0.89 (1.12)	12.77* (6.19)	0.91 (1.10)
연평균소득	0.02 (0.02)	0.42 (2.40)	0.00 (0.02)	0.38 (2.63)	0.04+ (0.02)	0.45 (2.22)
의존가구원 여부	-15.19** (4.45)	0.95 (1.06)	-0.07 (4.83)	0.94 (1.07)	-30.06*** (7.41)	0.94 (1.07)

주중주말	-2.41 (2.81)	0.99 (1.01)	-3.15 (3.00)	0.99 (1.01)	0.43 (4.74)	0.98 (1.02)
성별	166.39*** (4.34)	0.40 (2.51)				
상수	-29.26 (21.79)		77.48*** (22.84)		346.11*** (34.86)	
Adjusted R^2	0.47***		0.04***		0.1***	
Durbin - Watson	1.586		1.566		1.617	

주: $^{\dagger}p<0.1$, $*p<0.05$, $**p<0.01$, $***p<0.001$

〈표 4〉 60세 이상 기혼 노인의 가사노동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본인의 유급노동시간, 본인 소득,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 배우자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본인의 유급노동시간과 소득은 그 양이 커지면 가사노동 분담률을 줄이고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 길고 소득이 높으면 본인의 분담률은 증가하였다. 성별은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노인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남성의 59.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시간량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수준은 가사노동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들의 가사노동 분담률 차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과 배우자의 소득에 의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률 차이는 남편 그룹과 동일하게 본인과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 그룹과 달리 본인의 소득과 경제적 독립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소득이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 분담률이 낮은 반면 경제적 독립성이 높은 아내는 낮은 아내에 비해 가사노동 분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교환과 젠더 전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남편과 달리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률 차이는 배우자의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가구원의 존재는 남편에게는 가사노동 분담률의 증가를 아내에게는 감소를 의미하였다.

〈표 4〉 60세 이상 기혼 노인의 가사노동 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 체		남 편		아 내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본인 유급노동시간	-0.03*** (0.003)	0.26 (3.87)	-0.03*** (0.004)	0.27 (3.73)	-0.03*** (0.01)	0.25 (4.06)
본인 소득	-0.02* (0.01)	0.31 (3.20)	-0.01+ (0.01)	0.32 (3.17)	-0.04*** (0.01)	0.38 (2.64)
본인 성역할 인식	1.08+ (0.62)	0.88 (1.13)	1.69+ (0.88)	0.90 (1.12)	0.34 (0.87)	0.89 (1.12)
경제적 독립성	0.98 (0.91)	0.23 (4.43)	2.66+ (1.45)	0.30 (3.33)	3.20* (1.45)	0.30 (3.33)
배우자 유급노동시간	0.03*** (0.003)	0.26 (3.87)	0.03*** (0.01)	0.25 (4.05)	0.03*** (0.004)	0.27 (3.73)
배우자 소득	0.02*** (0.01)	0.34 (2.98)	0.04*** (0.01)	0.39 (2.60)	0.01 (0.01)	0.37 (2.74)
배우자 성역할인식	-1.04+ (0.62)	0.88 (1.13)	-0.25 (0.88)	0.90 (1.12)	-1.69+ (0.88)	0.90 (1.12)
본인 나이	-0.04 (0.08)	0.36 (2.80)	-0.07 (0.11)	0.37 (2.74)	-0.01 (0.11)	0.39 (2.58)
본인 교육	0.62 (1.06)	0.72 (1.39)	0.35 (1.29)	0.70 (1.43)	-0.68 (1.93)	0.73 (1.37)
본인 경찰여부	-1.25 (1.14)	0.27 (3.70)	0.34 (1.54)	0.29 (3.50)	-2.55 (1.71)	0.25 (4.02)
본인 건강	-6.29*** (0.74)	0.88 (1.13)	-5.68*** (1.11)	0.87 (1.15)	-6.73*** (0.98)	0.90 (1.12)
배우자 연령	0.06 (0.08)	0.37 (2.74)	0.03 (0.11)	0.40 (2.52)	0.08 (0.11)	0.37 (2.69)
배우자 교육	-0.82 (1.06)	0.72 (1.39)	0.61 (1.94)	0.73 (1.37)	-0.66 (1.29)	0.70 (1.43)
배우자 경찰여부	1.34 (1.14)	0.27 (3.69)	2.54 (1.71)	0.25 (4.00)	-0.13 (1.53)	0.29 (3.49)
배우자 건강	5.31*** (0.74)	0.90 (1.11)	5.97*** (1.00)	0.89 (1.12)	4.26*** (1.12)	0.91 (1.10)
연평균소득	0.00 (0.003)	0.42 (2.40)	0.00 (0.01)	0.38 (2.63)	0.001 (0.004)	0.45 (2.22)
의존가구원 여부	-0.09 (0.95)	0.95 (1.06)	4.51*** (1.34)	0.94 (1.07)	-4.73*** (1.34)	0.94 (1.07)
주중주말	0.18 (0.60)	0.99 (1.01)	-0.71 (0.83)	0.99 (1.01)	1.18 (0.86)	0.98 (1.02)
성별	59.26*** (0.92)	0.40 (2.51)				
상수	-39.82*** (4.63)		18.05*** (6.32)		80.33*** (6.29)	
Adjusted R^2	0.7***		0.09***		0.09***	
Durbin-Watson	1.506		1.501		1.533	

주 :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3. 60세 이상 기혼 부부의 돌봄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5〉 60세 이상 기혼 노인의 돌봄 노동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노인 부부 전체의 돌봄 노동 시간량은 본인의 유급 노동시간이 길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과 달리 본인의 연령이 높으면 적은 시간을 돌봄 노동에 할애하였고 배우자의 건강 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본인의 건강이 좋으면 돌봄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사회화된 성역할로 분석에 포함된 성별과 성역할 인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기혼 남성의 돌봄 노동 시간의 차이는 본인의 가용시간과 배우자의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유급노동시간이 긴 남성은 짧은 남성에 비해 돌봄 노동에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아내의 소득이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돌봄 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돌봄 노동시간은 본인의 나이, 건강 그리고 의존가구원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의존가구원이 없으면 돌봄 노동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60세 이상 기혼 노인의 돌봄 노동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 체		남 편		아 내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본인 유급노동시간	-0.09*** (0.03)	0.24 (4.11)	-0.10*** (0.03)	0.25 (3.98)	-0.07 (0.05)	0.24 (4.22)
본인 소득	-0.04 (0.04)	0.33 (3.05)	-0.08 (0.05)	0.32 (3.10)	0.04 (0.09)	0.42 (2.37)
본인 성역할 인식	3.93 (5.41)	0.87 (1.15)	2.75 (6.61)	0.88 (1.14)	5.13 (8.68)	0.86 (1.16)
경제적 독립성	7.41 (7.28)	0.24 (4.11)	19.80 (9.92)	0.33 (3.03)	5.93 (12.83)	0.33 (3.04)
배우자 유급노동시간	0.00 (0.03)	0.25 (4.09)	0.03 (0.04)	0.24 (4.21)	-0.01 (0.04)	0.25 (3.94)
배우자 소득	0.02 (0.04)	0.36 (2.82)	0.19*** (0.07)	0.43 (2.33)	-0.06 (0.06)	0.38 (2.66)
배우자 성역할인식	0.09 (5.41)	0.87 (1.15)	4.31 (6.67)	0.88 (1.14)	-0.73 (8.57)	0.87 (1.15)

본인 나이	-2.86*** (0.68)	0.37 (2.67)	-1.76* (0.83)	0.37 (2.72)	-3.98*** (1.10)	0.41 (2.46)
본인 교육	11.05 (8.49)	0.72 (1.39)	19.47* (9.09)	0.69 (1.46)	0.61 (17.37)	0.76 (1.32)
본인 경찰여부	8.75 (10.44)	0.25 (3.94)	-13.37 (12.01)	0.26 (3.80)	33.41+ (18.39)	0.24 (4.15)
본인 건강	-15.88* (6.26)	0.88 (1.14)	-9.26 (8.19)	0.84 (1.19)	-20.53* (9.41)	0.89 (1.13)
배우자 연령	0.06 (0.66)	0.39 (2.58)	-0.42 (0.84)	0.42 (2.41)	0.26 (1.05)	0.38 (2.62)
배우자 교육	12.97 (8.49)	0.72 (1.39)	-4.91 (13.42)	0.76 (1.31)	22.92 (11.73)	0.69 (1.46)
배우자 경찰여부	-1.79 (10.39)	0.26 (3.91)	5.43 (14.20)	0.24 (4.12)	-3.57 (15.37)	0.27 (3.73)
배우자 건강	9.84 (6.29)	0.90 (1.11)	8.85 (7.42)	0.88 (1.13)	8.10 (10.48)	0.89 (1.13)
연평균소득	-0.02 (0.02)	0.45 (2.22)	-0.03 (0.03)	0.41 (2.46)	0.00 (0.04)	0.48 (2.07)
의존가구원 여부	9.98 (6.14)	0.90 (1.11)	-0.25 (7.63)	0.88 (1.14)	21.67* (9.65)	0.88 (1.13)
주중주말	3.42 (5.21)	0.98 (1.02)	1.72 (6.33)	0.96 (1.04)	7.21 (8.39)	0.97 (1.03)
성별	13.07 (7.95)	0.40 (2.49)				
상수	235.48*** (42.51)		203.3*** (51.5)		303.69*** (66.76)	
Adjusted R^2	0.08***		0.05***		0.08***	
Durbin-Watson	1.64		1.671		1.664	

주 : $^{\dagger}p<0.1$, $*p<0.05$, $**p<0.01$, $***p<0.001$

〈표 6〉은 60세 이상 기혼 노인의 돌봄 노동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노인 부부의 돌봄 노동 분담률은 본인과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과 성별에 의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노동 분담률은 가사노동 분담률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건강과 배우자의 건강의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노동 분담률과 달리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에 의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편의 돌봄 노동 분담률 차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과 나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돌봄 노동 분담률의 차이는 남성 그룹과 동일하게 본인과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과 건강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고 남성 그룹과 달리 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의존가구원이 있으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60세 이상 기혼 노인의 돌봄 노동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 체		남 편		아 내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본인 유급노동시간	-0.06*** (0.01)	0.24 (4.11)	-0.06*** (0.02)	0.25 (3.98)	-0.06* (0.02)	0.24 (4.22)
본인 소득	-0.01 (0.02)	0.33 (3.05)	0.01 (0.02)	0.32 (3.10)	0.01 (0.03)	0.42 (2.37)
본인 성역할 인식	3.70 (2.42)	0.87 (1.15)	2.55 (3.42)	0.88 (1.14)	4.47 (3.48)	0.86 (1.16)
경제적 독립성	-2.12 (3.25)	0.24 (4.11)	-3.06 (5.13)	0.33 (3.03)	-3.41 (5.14)	0.33 (3.04)
배우자 유급노동시간	0.06*** (0.01)	0.25 (4.09)	0.06* (0.02)	0.24 (4.21)	0.06*** (0.02)	0.25 (3.94)
배우자 소득	0.00 (0.02)	0.36 (2.82)	-0.01 (0.03)	0.43 (2.33)	-0.01 (0.02)	0.38 (2.66)
배우자 성역할인식	-3.82 (2.42)	0.87 (1.15)	-4.61 (3.45)	0.88 (1.14)	-2.68 (3.44)	0.87 (1.15)
본인 나이	-1.00*** (0.30)	0.37 (2.67)	-0.77+ (0.43)	0.37 (2.72)	-1.03* (0.44)	0.41 (2.46)
본인 교육	0.15 (3.79)	0.72 (1.39)	-0.57 (4.70)	0.69 (1.46)	7.35 (6.97)	0.76 (1.32)
본인 경할여부	-3.77 (4.66)	0.25 (3.94)	-8.17 (6.21)	0.26 (3.80)	2.01 (7.37)	0.24 (4.15)
본인 건강	-11.63*** (2.80)	0.88 (1.14)	-15.06*** (4.24)	0.84 (1.19)	-8.28* (3.77)	0.89 (1.13)
배우자 연령	0.97*** (0.30)	0.39 (2.58)	0.92* (0.43)	0.42 (2.41)	0.76+ (0.42)	0.38 (2.62)
배우자 교육	0.12 (3.79)	0.72 (1.39)	-5.67 (6.94)	0.76 (1.31)	0.08 (4.70)	0.69 (1.46)
배우자 경할여부	3.10 (4.64)	0.26 (3.91)	-3.40 (7.35)	0.24 (4.12)	7.99 (6.16)	0.27 (3.73)

배우자 건강	9.44*** (2.81)	0.90 (1.11)	9.32* (3.84)	0.88 (1.13)	10.21* (4.20)	0.89 (1.13)
연평균소득	0.00 (0.01)	0.45 (2.22)	-0.01 (0.02)	0.41 (2.46)	0.01 (0.01)	0.48 (2.07)
의존가구원 여부	4.27 (2.74)	0.90 (1.11)	0.36 (3.95)	0.88 (1.14)	8.06* (3.87)	0.88 (1.13)
주중주말	-0.29 (2.33)	0.98 (1.02)	4.30 (3.28)	0.96 (1.04)	-4.58 (3.37)	0.97 (1.03)
성별	11.25*** (3.55)	0.40 (2.49)				
상수	35.8 (18.98)		45.67 (26.65)		63.22* (26.77)	
Adjusted R^2	0.17***		0.09***		0.09***	
Durbin-Watson	1.665		1.657		1.662	

주 :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60세 이상 기혼 부부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무급노동의 젠더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4배 이상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2배 가까운 시간을 돌봄 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률에서도 큰 젠더 격차가 나타났다. 전체 부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의 기여는 20% 미만이며 돌봄 노동은 그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낮은 34% 정도였다. 둘째 무급노동의 젠더 간 격차는 돌봄 노동시간량을 제외하고 성별에 의해 주요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급노동의 젠더 내 차이는 유급노동시간에 의해 주요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본인의 유급노동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아내의 돌봄 노동 시간량을 제외하고(〈표 5〉)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무급노동의 젠더 내 차이에 미치는 성역할 인식의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미비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급노동의 젠더 내 차이에 미치는 소득의 영향은 주요하며 경제적 교환과 젠더 전시로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소득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사노동에서

나타났다 (<표 3>, <표 4>). 흥미롭게도 남편의 절대적 소득은 아내의 무급 노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아내의 소득은 남편의 무급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소득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과 (<표 4>) 남편의 돌봄 노동 시간량을(<표 5>) 증가시켰다. 그러나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률의 차이는 젠더 전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남편보다 소득이 높은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남편보다 소득이 낮아 경제적 독립성이 낮은 아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또한 소득의 영향은 젠더 간 무급노동의 차이보다 동일 젠더 내 무급노동 차이를 더 설명하고 있었다. 소득은 돌봄노동 시간량이나 분담률의 차이보다 가사노동의 차이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은 무급노동 시간량의 차이보다 분담률의 차이를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미국 고령자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Szinovacz and Harpster(1994)의 결과와 동일하게 남편의 소득은 아내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와 달리 아내의 소득은 본인의 가사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을 줄이고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과 돌봄 노동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수렴 혹은 지속 가설의 논쟁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수렴 및 지속 가설은 주로 남성의 은퇴를 통한 노동시장참여 변화가 초래하는 남성의 가용시간의 변화와 성역할 인식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의 젠더 차이에 아내의 소득 자원의 영향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국내 연구진에 의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일반적 결과와도 다르다. 해당 연구들은 남성의 소득은 여성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주는 반면 아내 본인의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비한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연구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무급노동의 종류와 무엇의 젠더 불평등인가(시간량 혹은 분담률)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이론적 개념을 개발하지 않았으나 연구결과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가용시간, 사회화된 성역할, 소득과 함께 개인과 가구 차원의

변인들을 고려한 결과 시간량의 경우 모델 설명력이 분담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사와 돌봄 노동 모두에서 발견된다. 둘째 가용시간론, 자원론, 사회화된 성역할론은 돌봄 노동 보다 가사노동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와 <표 6>을 <표 3>, <표 4>와 비교하면 사회화된 성역할, 소득, 가용시간의 설명정도는 돌봄 노동에서 확연하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젠더 내 불평등을 보면 그 설명정도가 10% 이하로 낮다. 국외 연구에서도 모델의 설명력은 일반적으로 20%를 넘지 않는데 예를 들어 Greenstein(2000)의 연구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을 설명하는 모델의 설명력이 5-16% 수준이다. 모델의 설명력이 낮음은 새로운 변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서구 학자들이 도출한 가용시간론, 사회화된 성역할론, 상대적 자원론 이외 다른 인자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향후 연구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Brines(1994)와 Greenstein(2000)이 제시하듯 경제 협상과 젠더 전시가 노인 세대의 무급노동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젠더 전시가 발현되는 조건을 규명하는 연구가 흥미로울 것이다.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의해 주요하게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건강의 젠더 불평등 문제를 고려하면 계층간 부부의 건강 격차가 가용시간, 상대적 자원 그리고 성역할 인식과 어떠한 관계에서 무급노동의 불평등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흥미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 기혼 여성의 돌봄 노동은 10세 이상 아동이나 돌봄이 필요한 성인에 의해 주요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가구원은 노인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량이나 분담률은 줄이고 돌봄 노동 시간량이나 분담률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가구원은 노인 기혼 여성에게 주요한 돌봄 노동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돌봄 정책이 노인 기혼 여성의 무급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흥미로울 것이다.

한국 노인 여성의 소득 자원에 의한 협상력은 젠더 불평등에 긍정적인 함의를 제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존재하는 젠더 전시적 행태는 소득 자원에 의한 협상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노인 기혼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의 한계는 노동시장참여율, 직종, 고용형태, 임금 등의 남녀 격차가 원인일 수

있고 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의 심각한 젠더 격차가 원인일 수 있다. 노동 시장참여와 공적 이전의 젠더 격차의 감소는 빠른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한국 노인 가구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창 (2010). “연금수급가능에 따른 중·고령 여성가구주의 소득불평등과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재분배효과 연구”. 노인복지 연구. 제48권 131-150.
- 김경아 (2008). “국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현황 및 공적연금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2권. 79-107.
- 김동배·유병선·이정은 (2012). “노인의 건강불평등 : 교육 불평등에 따른 건강 불평등에 대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1호 117-142.
- 김영혜 (2004).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 유배우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영향에 대하여”. 한국인구학. 제27권 제1호 1-30.
- 김정석 (2005). 한국 중년 남녀의 무급노동내용과 시간량.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173-201.
- 김소영·진미정 (2016).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 2004년-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4권 제3호 65-84.
- 김수정·김은지 (2008).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제41권 제2호 147-174.
- 배호중 (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홀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4호 151-181.
- 손병돈 (2009).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인분해”. 한국노년학. 제29권 제4호 1445-1466
- 안미영 (2015). “한국 중장년 기혼 여성의 일가족양립에 관한 연구: 성역할보완의 결과인가?”. 비판사회정책. 48권. 219-247.
- 안미영 (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제112권. 14-40.
- 이소정 (2009).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제32권 제1호 71-91.
- 이용재 (2016).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591-600.
- 이원진 (2012).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4호 163-188.

- 이현주 (2015). “여성노인의 가사·돌봄 노동의 젠더불평등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25권 제3호, 141-177.
- 이주하·김진욱·안미영·정혜주·엄태영 (2015). 사회적 위험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복지분야 전략. 보건복지부.
- 우해봉·윤인진 (2005). “한국노인의 경제적 지위 결정요인과 세대간 지원의 역할”. 한국노년학. 제25권 제2호, 73-93.
- 은기수 (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제32권 제3호, 145-171.
- 오지혜 (2016).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상대소득 및 절대소득 효과: 교환이론과 젠더보상이론을 넘어서”. 가족과 문화. 제28권 제1호, 233-270.
- 정순희 (2005). “노인의 가사노동 기여도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53-62.
- 조미라 (2016). “여가시간 불평등 연구: 1999-2009년 성별 여가시간양의 변화 및 불평등 요인분석”. 한국인구학. 제39권 제1호, 29-57.
- 장수지·김수영 (2016).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건강불평등: 심리 사회적 기제들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노년학. 제36권 제3호, 611-632.
- 지은정 (2011). “OECD 10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1호, 333-370.
- 조미라·윤수경 (2014). “한국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연구: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44권, 5-30.
- 허수연 (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4권 제3호, 177-210.
- 천희란·강민아 (2011). “여성노인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측정: 통합방법론 (Mixed Methodology)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제1호, 247-276.
- 최희경 (2005). “빈곤 여성 노인의 생애와 빈곤 형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27권, 147-174.
- 통계청 (2015). 201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 An, M. Y. (2009). Gender impact of National Pension Reforms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66(2), 77-99.
-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 Robinson, J. P.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 Bittman, M., England, P., Folbre, N., Sayer, L., & Matheson, G. (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 186-214.
- Blood, R. O., & Wolfe, D. M. (1960). *Husbands and Wives :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New York : Macmillan.
- Broderick, C., & Smith, J. (1979). *The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 Free Press
- Brines, J. (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652-688.
- Brubaker, T., & Kinsel, B. (1985). Who is responsible for household tasks in long term marriages of the "Young-old" elderly. *Lifestyles : A Journal of Changing Patterns*, 5, 238-247.
- Greenstein, T.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322-335.
- Gauthier, A. H., & Smeeding, T. M. (2003). Time use at older ages, *Research on Ageing*, 25(3), 247-274.
- Gupta, S. (2007). Autonomy, dependence, or display?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earnings and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399-417.
- Hank, K., & Jürges, H. (2007). Gender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older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28(3), 399-421.
- Iversen, T., & Rosenblueth, F. (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gender : Explaining cross-national variation in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and the gender voting gap,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1) : 1-19.

- Keith, P. M., & Schafer, R. B. (1986). Housework, disagreement and depression among younger and older couples, *American Behavioural Scientist*, 29, 405-422.
- Kuhhirt, M. (2012). Childbirth and the long-term division of labour within couples : How do substitution, bargaining power, and norms affect parents' time allocation in West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8(5), 565-582.
- Leopold, T., & Skopek, J. (2015). Convergence or continuity? The gender gap in household labor after retir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 819-832. OECD (2017) Labour force statistics, [http : //stats.oecd.org](http://stats.oecd.org)
- Szinovacz, M. (1980). Female retirement : Effects on spousal roles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3), 423-438.
- Szinovacz M., & Harpster P. (1994). Couples' employment/ retirement status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tasks,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s*, 49(3), S125-S136.
- Szinovacz, M. (2000). Changes in Housework after Retirement : A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1), 78-92.
- Solomon, C. R., Acock, A. C., & Walker, A. J. (2004). Gender Ideology and Investment in Housework : Post-retirement Change, *Journal of Family Issues*, 25(8), 1050-1071.
- Sørensen, A., & McLanahan, S. (1987). Married women's economic dependency 1940-198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659-687.
- West, C., & Zimmerman, D. H. (1987). Doing gender, *Gender and Society*, 1(2), 125-151.

Abstract

**Gender Division of Labour at Home among
Older Couples in South Korea***

Mi Young An**

This article examines gender division of labour among older couples in South Korea. We drew 2,659 couples aged 60 and over from Time Use Survey in 2014 to test time availability, absolute and relative income and gender. Gender differences in domestic chores and care work are significant; older women's time spent on domestic chores is more than four times larger than that of men and older women spend twice more on care work than male counterparts.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highlighted changes in time availability or gender ideology, this article suggests that income matters for gender division of labour at home in old age which effects are complex. Older women's income not only reduces unpaid work of their own but also their husbands' unpaid work. By contrast, husband's income does not make influence on the wives' time on unpaid work. Nonetheless, relative income shows that Korean older women do gender display that those economically more independent spend no less time on domestic chores than wives more economically dependent.

Keywords : older couples, gender inequality, family, housework, care work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6S1A5A2A01926961).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Kookmin University, myan@kookmin.ac.kr